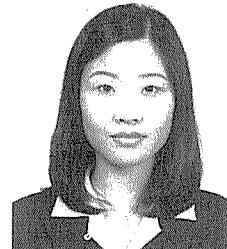


## | 특집 · 양계장 청정화를 위한 질병예방 대책 |

야외에서 실시하는 적절한 소독

# 형식적인 소독, 이제 그만!



소 현 희 한솔동물병원 수의사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필드에서 소독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국가에서 양계 농가에 소독약을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독은 양계 농가의 의무가 되었다. 예전에 비하여 많은 양계 농장에서 소독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희석비율 등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양계장의 출입구에 분무형 자동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어 소독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필자가 필드에서 느낀 소독에 대한 참고 사항들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양계현장에서 소독을 실시할 때 참고가 되길 바란다.

### 1. 인내와 준비가 요구되는 소독

필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는 역시 형식적인 소독이다. 다시 말해, 소독을 했지만 소독이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출입구에 자동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는 농장에서 진입하는 차에만 소독약이 분사되고, 운전자는 차 안에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장 진입로를 차단한 후, 진입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인체 소독실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놓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도 실제로 여러 농장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진

입로를 열기 위해 인체 소독실에 들어선 후, 소독약에 머리와 옷이 젖지 않도록 빨리 뛰어 지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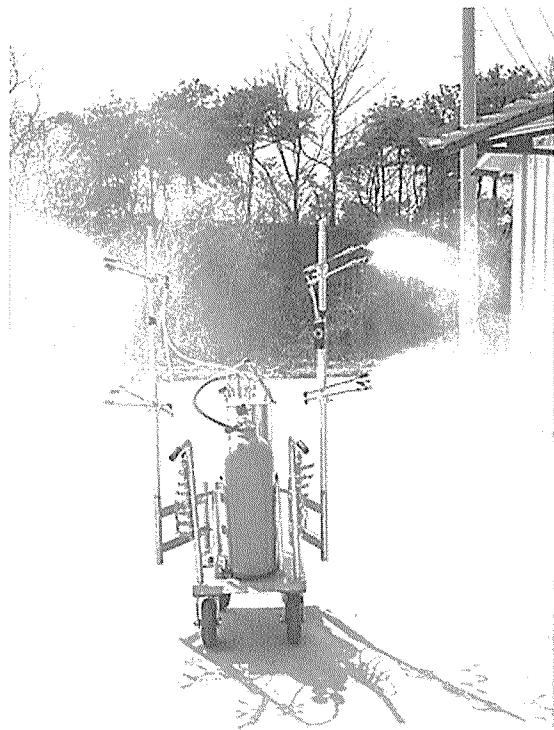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체 소독실내에 고리형 문을 2개를 설치하여 고리를 열면서 인체소독실 내에 오랫동안 머물게 만들어 놓은 농장도 있다.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필자를 포함해서 이 농장에 들어서는 사람은 소독약에 철저히 젖게 된다. 이처럼, 형식적인 소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농장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그 외에도 간단한 일이지만 아주 번잡한 일이 소독약을 주기적으로 교체, 희석해주는 일이다. 한번 타놓은 소독약을 몇 일간 사용하는 농가도 있는데, 이 역시 소독을 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농장주는 내 농장의 소독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한다.

### 2. 효과적인 소독방법

필드에는 다양한 성분의 소독제가 있는데 각 소

독제별 성향을 잘 이해하여야 내 농장에 맞는 적절한 소독을 실시 할 수 있다. 여러 번 설명한 바 있지만, 간략하게 소독제 성분별 특성을 설명하자면



## | 특집 · 양계장 청정화를 위한 질병예방 대책 |

아래와 같다.

우선, 예전에 많이 사용하여왔던 폐놀 화합물 제제는 줄이라는 제품명이 많으며, 세균과 곰팡이에 대한 효과가 인정되는 반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독제로는 유일하게 원충, 충난에 효과가 인정되므로 콕시듐증을 억제하기위한 소독제로 이용하면 좋다. 콕시듐증이 문제가 되는 농장에서는 다른 성분의 소독제로 1차 소독을 실시한 후, 바닥 소독제로 폐놀 화합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필드에서 많이 쓰이는 소독제 중에 하나인 4급 암모늄 화합물은 광범위한 소독력을 지녔으나, 바

이러스에 대한 소독력은 불확실하다. 특히, 외막을 형성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원인체인 감보로병에 대한 소독력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감보로병이 다발하는 농장에서는 4급 암모늄 계 소독제를 선택하기보다는 산성제제, 염소계, 알데하이드류 소독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살모넬라증, 대장균증 등이 문제되는 농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세균에 대한 효과가 탁월한 4급 암모늄계 소독약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러한 4급 암모늄계 소독제를 닦아 있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는 활용법 중 하나가 닦 안면부종 시 분무소독이다. 특정 바이러스성 질병이 아닌 환기불량 및 암모니아가스로 인한 안면부종에는 4급 암모늄계의 소독약을 집중적으로 3일 이상 닦의 안면부에 분무해주면 눈에 띄게 안면부종이 가라앉는 것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알데하이드 화합물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광범위하게 작용하며, 특히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력이 우수하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장점을 살려 4급 암모늄계와 알데하이드류가 혼합된 소독제가 많이 판매되고 있다.

할로겐 화합물인 염소제제는 주로 음수소독에 이용되며,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광범위하게 소독 효과를 나타낸다. 닦을 입식하기 전에 염소계 소독약을 이용하여 니플 급수기를 소독하면 깨끗하게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온도가 상승하면 소독성분이 휘발되어 소독력이 저하되므로, 여름철에는 소독제 통 뚜껑을 잘 관리하고, 희석배율을 더 높여야 한다. 위에 거론된 성분들의 소독제 상품명은 각 지역의 수의사나 약품 대리점 등에 문의하면 된다.



## | 양계장 청정화를 위한 질병예방 대책 · 특집 |

### 3. 백신과의 연계성 고려

그 외에도 필드에서 농장 내부 소독을 실시할 때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생독백신과의 간격이다. 최근에는 주기적으로 ND백신 분무접종을 실시하는 산란계 농장도 많고, 육계농장에서도 ND, IBD 생독백신을 펼히 분무/음수접종하기 때문에 소독과의 간격을 지켜야 한다. 필자도 월요일에 ND백신 분무접종을 실시하려 농장에 방문했는데, 일요일이 계사 전체 소독일이어서 백신접종을 다음으로 미룬 적이 있다. 다른 농장에서는 원수통에 알약형 소독약을 주기적으로 넣는 것을 생각 못하고, 병아리장에 생독백신을 음수 접종한 경우도 있다.

간단한 일이지만, 필드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생독백신 접종이 예정되어 있

으면 계사 내부 소독을 백신접종 전후 3일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4. 기본을 지키자

필드에서의 적절한 소독은 각각의 농장에서 최상의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농장에 들어오는 여러 외부인과 사료, 약품, 기자재 차량들에 대한 적절한 소독시설 및 소독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와 함께 차단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소독제가 뿌려진 직후 바로 바이러스가 사멸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독제를 흡뻑 맞았다고 바로 계사 내에 외부인이 들어가는 것은 금물이다. 이러한 기본 아래서 농장과 주변 질병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독제를 선택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계]**

## 양계속보 계재내용 및 구독안내

### 1. 계재내용

- 가. 새소식 : 국내외 양계업계 소식 및 질병, 생산과 관련된 각종 새소식 등을 게재
- 나. 금후전망 : 양계산물 유통에 대한 금후 전망을 육계, 달걀을 구분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
- 다. 양계산물 시세 : 일별 달걀, 산지 육계가격 및 각종 병아리, 노계, 토종닭 시세 등
- 라. 10대 회사 주간 양계사료 생산실적
- 마. 육용종계 · 실용계, 산란종계 · 실용계의 주간 종란입란 및 병아리 발생실적

### 2. 구독료 및 구독방법

- 가. 구독료 : 1부당 연간 15만원[단체구독 : 10만원(20인 이상)]
- 나. 발송방법 : 팩시밀리 또는 E-mail
- 다. 발송횟수 : 주 2회(화, 금요일)

### 3. 구독신청 및 문의

농협 097-01-000953(예금주 : 대한양계협회)  
(☎ 02-588-7651 담당 : 이상원)